논어 7편 술이 3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德之不脩，學之不講，聞義不能徙，不善不能改，是吾憂也。」

독음 · 자왈 덕지불수 학지불강 문의불능사 불선불능개 시오우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덕을 닦지 못함,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함, 의로움을 듣고도 옮겨 가지 못함, 잘못을 고치지 못함을 걱정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德 큰 덕 덕 / 之 갈 지

不 아닐 불 / 脩 포 수 수 / 學 배울 학 / 講 강론할 강 강

聞 들을 문 문 / 義 옳을 의 의 / 能 능할 능 능 / 徙 옮길 사 사

善 착할 선 선 / 改 고칠 개 개 / 是 이 시 시 / 吾 자기 오 오

憂 근심 우 우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